

금융위 “1사 1라이선스 완화… 펫보험 전문 자회사 허용”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전문분야 특화된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도 추진
김주현 “시장 안정·혁신 함께 노력”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한 번에 알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이 열린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해 기존 보험사도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려의 두바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산분리 규제 완화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 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사를 둘 수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신탁회사에서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해 유산, 애완동물, 특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개선과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해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산분

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비금융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

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위탁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업무에 대한 위탁여부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이밖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내년 5월부터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금

리와 한도를 비교해 한 번에 알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사를 찾는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년간 2.25%포인트(p) 인상됨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5.15%로 9년 내 최고수준으로 올랐다”며 “손쉽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을 공유하고, 상환필요 금액과 상환계좌, 대출 약정 금액 등을 공유해 추가절차 없이 원하는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도 확대한다. 현재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0곳으로 대출비교 플랫폼은 토스 등 3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도 제공하고, 대출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나누리 기자 yull115@metroseoul.co.kr

금감원, 금융사 예측가능성 제고… 정기검사 사전 통보

연초 연간 검사계획 대상 안내
금융사 임직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은 14일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을 서면 통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부서

금융감독원 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 ▶ **검사 사전예고 실시**
-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 통보
- 검사연장시 미리 서면 통보
- ▶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
- 신속처리협의체 신설(관련부서 일괄 협의)
- IT분야 회신 속도 제고(IT전문위원 위촉)
- ▶ **소비자보호 정보 신속제공**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신속 통보
- 금감원 제재공시 검색기능 개선

금융회사 권익보호 강화

- ▶ **방어권 보장 확대**
- 본인의 문답서 등 복사 허용·열람기간 확대
- 변호사 조력권 서면 안내
- ▶ **제재심 운영 개선**
- 제재심의위원회 신속 처리(월 2회 → 주시)
- 진술인별 대기시간 최소화
- ▶ **사적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반납·폐기 명확성 제고
- 디지털자료 수집 관련 참여권 보장

자료/금융감독원

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서 접수 후 일정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매년 3분기 내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11월 내 공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시 관련 주제어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겠다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

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 열람 가능시점을 개최 5영업일 전에서 약 20일 전으로 늘린다. 제재 입증자료 열람·복사 관련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진술인의 불편한 마음에 대해 배려하겠다”며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안내해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해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7남영 기자 koogija_tea@

KB국민은행 ‘리브 넥스트’ 고객 참여형 콘텐츠 오픈

KB국민은행이 Z세대를 위한 금융플랫폼 리브 넥스트(Next)에 고객 참여형 콘텐츠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학생들의 관심도를 파악해 꿈, 진로, ESG 등을 주제로 제작됐다.

▲학생들의 고민을 담은 밸런스 게임 ▲매일 하는 등교 챌린지 ▲친구와 함께 도전하는 기부좋은 학교 ▲문제를 풀며 ESG 활동에 동참하는 ‘이번 주 퀴즈’ ▲모바일로 하는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에도 신선한 콘텐츠와 도움이 필요한 기부처를 발굴해 고객들이 따뜻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누리 기자

17일 수능날 은행 영업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

은행연합회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7일 은행 영업시간을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은행의 정상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지만, 코로나19 발발 이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교통을 위해 영업시간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단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승용 기자

‘우리WON카’ 신규 고객 경품 이벤트

우리금융그룹, 내달 8일까지 진행
애플·갤럭시 세트 등 랜덤 추첨

우리금융그룹은 우리WON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WON카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하며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등 우리금융 3사의 금융상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우리WON카’ 앱을

처음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랜덤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애플 3종 선물세트 1명(아이폰14 프로맥스 512GB, 에어팟 프로 2세대, 애플워치8 45mm GPS) ▲갤럭시 3종 선물세트 1명(갤럭시Z폴드4 512GB, 갤럭시 버즈2 프로, 갤럭시워치5 프로 골프에디션 45mm 블루투스) ▲BHC 치킨 기프티콘 100명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NH농협은행 호주 ‘시드니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14일 호주 시드니에서 ‘시드니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토니 애벗 호주 전 연방정부 총리,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홍상우 총영사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호주 진출을 통해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금융(IB)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준혁 NH농협은행장은 “시드니지



NH농협은행 권준혁 은행장(왼쪽 세 번째)이 14일 열린 시드니지점 개점식에서 토니 애벗 호주 전 연방정부 총리(왼쪽 두 번째)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NH농협은행

점은 당행 글로벌 IB사업의 전략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